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칭찬은 행복 비타민

“칭찬합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칭찬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비타민이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인간관계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온화하게 해주는 물론 그 넓이를 한없이 넓혀주는 역할도 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기폭제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것이다.

생각해 보라 누구든지 칭찬을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가. 칭찬은 사람들이 기를 쓰고 모으려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도 않는다.

즉, 아무런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광폭적인 효과를 나타낸

다. 효과가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지는 것도 아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그 여진은 오래 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칭찬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고 예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다. 상대방을 칭찬하면 자기 자신이 손해 보는 것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정정당당하게 상대방과 겨루기보다는 사술을 써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승승게임보다는 자신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오히려 험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험담이 인간세상의 목소리는 것은 누구냐 인다. 모로코 속담에도 험담은 최소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그 첫 번째는 험담을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이를 옮기는 사람이다. 그들은 이 순간에도 공존한다는 말이 맞는다.

이처럼 험담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험담은 온라인 오픈라인 할 것 없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는 곧 우리 주변을 청량감보다는 혼탁함이 감도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리는 짓거리들이다.

이런 현상은 소시민들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을 비롯한 소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심하다. 그들은 이 순간에도 공존보다는 유이독존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직설적으로는 물론 칭찬을 가정한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짓칭찬, 사탕발림 칭찬, 실속 없는 칭

찬, 의미 없는 칭찬 그리고 금방 뒤돌아서서 욕을 해대는 칭찬도 마다하지 않는다.

권력이 있을 때는 갖가지 아부를 다해가며 칭찬을 하다가도 그 힘이 사라지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정치모라미 및 장사치들,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훌륭한 프로젝트를 고안해 낸 사람도 어둠의 뒷골목으로 몰아가버리는 사람들.

상황리에 치러지는 남의 잔치를 애써 껴뭍히려는 가슴이 편안해지는 족속들, 극한적인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넘나들지 못하도록 이류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안간힘을 써대는 일부 몰지각한 불신주의자들, 이런 쓰레기 같은 부류들이 우리사회에 엄존하기 때문에 칭찬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지도 모른다. 참으로 애제다. 그리고 통제다.

오물 투성이 사회에서 항기로 운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회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칭찬을 생활화해야 한다. 칭찬은 구체적이고 간결해야 한다. 사소한 것부터 칭찬해 주도록 하자.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인간관계를 폭넓게 해야 하는데 그 한 가운데에 바로 칭찬이 빠리를 들고 있다. 비판마저도 칭찬처럼 하라고 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社說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해야

교육부가 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면서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더니 지켜볼 일이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그간 사립대학 위주로 단발적인 비리 문제에 한정해 이뤄지던 교육 비리 해결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선다.

올해 신설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현황 보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실무를 맡는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3월 직제 개편에서 '교육비리담당관(가칭)'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 팀 안에 중대 비리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할 '특별감시팀'이 꾸려진다. 특별감시팀은 교육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는 물론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등을 통해 파악되는 교육인사의 개인 비리도 들여다보게 된다.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도 특별감시팀에서 맡는다.

추진단은 또 그간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유지원 고충 접수센터 등 4개로 나뉘어 있었던 비리 신고 센터를 '국민신고센터'(가칭)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 출범은 부총리가 격주로 정례 회의를 주재하는 '교육계 비리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감사 인력 확대가 없고 교육부 조사가 강제력도 없는 까닭에 감사도 비리로 누군가 특혜를 입는 일로 기회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克 念 作 聖

이 克 念 作 聖

念 作 聖

▷ 뜻: 성인(聖人)의 언행(言行)을 잘 생각하여 수양(修養)을 쌓으면, 자연(自然)스럽게 성인(聖人)이 됨을 말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장소별 화재발생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뉴스를 보면 주택화재, 시장화재, 차량화재 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다양한 장소에 화재가 있듯이, 장소에 맞는 화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주택 화재예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주 생활공간인 주택은 화재발생 위험 요소가 가장 많다. 자택에 불필요한 가연물(현 옷, 신문폐지, 폐 박스 등)을 쌓아놓지 말자. 카펫의 밑면이나 장롱 뒤편 등의 보이지 않는 곳에 전선을 늘어뜨리지 말자. 어린이의 손이 닿거나 쉽게 가능한 곳에 라이터나 성냥갑을 두지 말자. 가스불 위에

요리를 올려놓고, 내버려둔 채 주방을 잠시간 비우지 말자.

둘째, 아파트 화재예방법이다.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 또는 비상 칸막이 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막지 않도록 기구를 놓지 말자.

파난계단이 연기에 오염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기를 피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을 염두에 두자.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문의 개방이 어려운 주상복합 고층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통하여 연기의 확산이 예상되므로 연기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안전구역(밀폐 가능한 작은방 등)이 필요

하다.

셋째, 차량 화재예방법이다. 냉각수를 자주 점검하고 보충한다. 경고등과 온도 게이지를 유심히 살펴주도록 한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주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한다. 차량의 배선, 연료, 점화 장치를 수시로 점검한다.

차내에 라이터나 성냥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도록 한다.

넷째, 시장(점포) 화재예방법이다.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며,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한 전기배선을 하지 않는다. 중앙공급식 난방을 설치하여 겨울철에 이등식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상품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손님들의 담뱃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방차의 진입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이처럼, 장소별 화재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화재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장소별 화재예방법을 숙지해 모두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자.

이윤창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湖南新聞
대외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청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